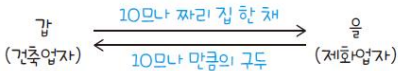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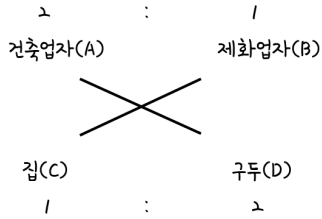


‘수능심화노트 - 생활과 윤리’ 정오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11	(필기노트) - 레오폴드 : 생태계 전체 ⇒ 생명중심주의	- 레오폴드 : 생태계 전체 ⇒ 생태중심주의	오타 수정
13	(3문단 4행) 무의하다고 보기 때문	무의미하다고 보기 때문	오타 수정
15	(3문단 1행) 인간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오타 수정
18	(4문단 1행) 그런데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입니다. 싱어는 인간이 동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통에 관하여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동일한 행위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고통의 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적으로 말의 등을 때렸을 때보다는 어린이의 얼굴을 때렸을 때 더 큰 고통이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냐가 아니라 고통감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좋은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인간과 개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음식이 개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싱어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 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입니다. 싱어는 인간이 동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통에 관하여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 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동일한 행위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고통의 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적으로 말의 등을 때렸을 때보다는 어린이의 얼굴을 때렸을 때 더 큰 고통이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냐가 아니라 고통감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좋은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인간과 개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음식이 개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싱어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 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용 오류 수정
19	(필기노트) • 고통에 관하여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	• 고통에 관하여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를 동등하게 고려	
39	(2문단 2행) 양서류 전체가	전체로서의 개구리 종이	내용 수정
49	(3문단)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적 정의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그에 따르면 교환적 정의에도 비례적인 평등이 적용되는데, 이때에는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교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에 비례하여 교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업자 갑과 제화업자 을이 집과 구두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해 봅시다. 먼저는 집 한 채와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교환적 정의에 어떤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그에 따르면 교환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산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는 생산자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생산물의 고유한 가치를 화폐를 매개로 측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생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는 생산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교환비가 일치되도록 교환해야 합니다.	내용 수정

	동등한 가치를 지닌 구두는 몇 켈레인지를 화폐를 매개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집 한 채가 10브나이고 구두 100켈레가 10브나라면 건축업자는 제화업자에게 집 한 채를 지어준 대가로 구두 100켈레나 10브나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교환적 정의는 산술적으로 같은 수의 재화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되는 것의 가치에 비례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 갑과 제화업자 을이 집과 구두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해 봅시다. 건축업자는 제화업자보다 두 배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합니다. 먼저, 집 한 채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구두는 몇 켈레인지를 화폐를 매개로 결정합니다. 만약 집 한 채가 10브나이고 구두 100켈레가 10브나라면, 집 한 채의 가치는 구두 100켈레와 동등한 가치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생산자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오직 생산물의 고유한 가치를 산술적 비례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갑, 을 두 사람의 상대적 가치에 따라 그에 비례하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건축업자는 제화업자보다 두 배로 가치 있는 사람이므로, 건축업자는 제화업자에게 집 한 채를 지어준 대가로 구두 200켈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화업자 을이 집 한 채를 받고 갑에게 구두를 200켈레를 주었는데, 그 중에 구두 50켈레가 불량품이라면 이 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됩니다. 이때에는 교정적 정의의 원칙이 적용되어 을은 갑에게 구두 50켈레에 대해서만 보상해주면 됩니다. 사람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고 산술적 비례에 따라 교정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입니다.	
--	---	---	--

50	(필기노트) (3) 정상적 거래의 경우 : 분배적 정의도 교정적 정의도 적용되지 않는 상황 ⇒ 기능학적 비례가 적용됨 	(3) 정상적 거래의 경우 건축업자 A는 제화업자 B보다 두 배 가치 있는 사람이다. 두 사람 사이에 집과 구두를 정의롭게 교환하려면, 먼저 화폐를 매개로 집 한 채의 고유 가치와 구두 몇 켤레의 고유 가치가 같은지 따져야 한 A로부터 집을 받은 B는 집의 고유 가치의 두 배에 해당하는 구두를 A에게 주어야 한다. 만약, 집 한 채가 100으나, 구두 한 켤레가 100이라면, A가 집 한 채를 주는 대가로 B로부터 구두 200 켤레를 받아야 한다. 	내용 수정
58	(필기노트 마지막 문단) ○ 불평등의 정당화 추구 1) 경쟁적인 시장 경제 체계	○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 체계 1) 경쟁적인 시장 경제 체계	오타 수정
76	○ 응보주의 (1문단 8행) 형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면	형벌이 응보를 통해 공적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되면	내용 보완
80	(3문단 4행) 그러므로 사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타 수정
118	(필기노트) 국가 간 분의 재분배가 국제정의	국가 간 부의 재분배가 국제정의	오타 수정
125	(1문단 6행) 롤스는 이와 같은 원조가	싱어는 이와 같은 원조가	오타 수정
138	(1문단 4행) 칸트는 이와 같은 국가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통치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무법적 상태로 타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칸트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인 단일 국가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맹 체제를 추구합니다. 개인들이 자연 상태에서 계약을 맺어 국가를 형성한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 국가들이 계약을 맺어 단일한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내용 보완

		것은 이성의 요구입니다. 하지만 국가들이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이러한 계약을 맺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칸트는 이와 같은 세계 공화국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하므로 항구적 세계 평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세계적 단일 국가가 모두 이처럼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칸트는 강대국이 힘으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해서 세계 국가를 건설한다면 이런 국가는 연맹체제 형성 이전의 국제질서만도 못하다고 봅니다. 정리해보면 칸트의 세계 국가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가들이 자율적 계약으로 형성한 세계 공화국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강대국의 힘에 의해 병합된 세계 국가는 연맹체제가 형성되기 이전에 주권 국가들이 분립하고 있는 국제질서보다도 나쁜 것입니다.	
151	(필기노트) 개인의 적개심 을 안 됨	개인의 적개심 은 안 됨	오타 수정
163	(첫번째 필기노트) (결론) ② 선생님은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당위명제)	② 선생님은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당위명제) ③ 선생님이 학생들을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위명제)	누락된 내용 보충
178	(두 번째 인용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을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이익을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을 것이다.'	오타 수정
178	(마지막 문단 5행)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오타 수정
179	(필기노트) 네 의지 의 준칙이	네 의지의 준칙 이	밑줄 위치 수정
200	(2문단 1행)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적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은	오타 수정